

천주교, 녹차 들고 가두 선교 나서다

순천 조곡동성당 선교단 구성 시민들에 차 제공 두번째 거리 선교...봉사활동 하면서 간접 선교

일요일인 지난 25일, 햇빛이 고개를 내미는 오후 2시쯤 되자 순천시 풍덕동 동천변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천막을 친 이들은 간이탁자에 온수병을 놓고 천변을 따라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커피와 녹차 등 따뜻한 음료를 대접했다.

이 날은 천주교 광주대학교 순천 조곡동성당 신자들로 구성된 가두선교단이 두 번째 선교 활동하는 날. 도심이나 지하철 주변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의 개신교 가두선교단은 흔하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드문 일이다.

지난 18일 같은 장소에서 처음으로 가두선교에 나선 이들은 시민 200여명에게 차를 제공했다. 광주대학교 내에서도 이처럼 조직적이고 정기적인 가두선교단은 전무한 상태다.

단체를 맡고 있는 안창열(세례명 엘리시오)씨는 “대전이나 대구, 마산교구에 들렀을 때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들에게 차를 나눠주며 선교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며 “천주교의 경우 선교 활동에 덜 적극적인 것이 사실인데 봉사 활동의 개념과 함께 선교를 실천하는 방법을 고심했다”고 말했다.

현재 단원은 15명 정도. 이들은 이동 선교, 병원 선교, 고정 선교 등 선교의 여러 방법 중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종교 이미지를 심을 수 있고, 선교 대상으로부터 거부감이 적은 공익

및 유익한 고정 선교를 택했다.

안씨는 “굳이 공격적인 선교를 해서 우리 성당의 신자로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주교를 알리는 간접 선교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천변을 비롯해 인근 등산로인 죽도봉 입구 등에서도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천주교의 가두선교는 지난 1990년 대구대학교 이관석 신부가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이라는 제목의 96쪽짜리 안내책 5천부를 만들어 대구 삼덕본당 신자 100명과 함께 시내 전역에 나눠주면서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주한 교황대사인 체릭 대주교가 명동성당에서 미사 집전을 통해 ‘한국천주교 가두선교단’ 단원들을 축복하기도 했다.

순천 조곡동성당 임재민 주임신부는 “지난 해부터 본당 신자들이 서울이나 대구 등에서 가두선교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며 “단원들이 의욕을 갖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대학교 사목국장 김중주 신부는 “광주대학교의 경우 가두선교단 활동이 교구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아 분당별로 연간 1~2차례 실시된다”며 “지역과 본당의 특색에 맞게 신자들의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학교 순천 조곡동성당 '가두선교단'이 순천시 풍덕동 동천변에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하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 (조곡동성당 제공)

한국 천주교 신자 2020년까지 지속 증가

미사 참여율은 떨어져

한국 천주교 신자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미사 참여율이나 병자차(쉬는 신자)가 증가하는 등 내용 면에서는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예측했다.

천주교 서울대학교 통합사목연구소(대표 전원 신부)는 27일 오후 명동성당 별관에서 ‘미래 한국사회와 가톨릭 교회’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7차 연구발표회에서 신자수가 2010년에 522만2천43명(총인구의 10.7%), 2015년에 583만3천481명(11.8%), 2020년에 644만4천

918명(13.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통합사목연구소가 천주교 교세통계표에 근거해 예측한 것으로 1975년 105만2천691명(총인구의 2.9%), 1985년 199만5천905명(4.8%), 1995년 345만1천266명(7.7%), 2005년 466만7천283명(9.7%) 등으로 나타난 신자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신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일미사 참여율 등은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천주교 교세통계에 따르면 총신자 가운데 주일미사 참여율은 1995년 35%, 2000년 29%, 2005년 26.9%로 갈수록 감소했다. /연합뉴스

전국 선원 스님 2,200명 동안겨 들어가

3개월간 참선 수행

지난 23일 장성의 고봉총림 백양사를 비롯한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2천200여명의 스님들이 일제히 동안겨(음력 10월15일~이듬해 1월15일)에 들어갔다.

백양사 방장(方丈) 지중 스님은 결계 법어를 통해 “수행자는 정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세상을 잠재우는 주인공은 유위(有爲)와 무위(無爲)를 떠난 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선(善)과 복(福)을 짓는다 해도 복과 선은 화(禍)와 악(惡)을 의지해서 만들어지는 동시에 한계(限界)가 있다”며 “고통을 영원히 없애고 생(生)과 사(死)를 동시에 끊어내는 최상의 방법은 화두선(話頭禪)”이라고 강조했다.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중국 백장(百丈) 스님은 하루를 놀면 하루를 굶는다고 했고 용성(龍城) 스님과 학병(鶴鳴) 스님은 선농(禪農)을 병행(並行)했다”며 “송광사 대종은 시물(施物)을 수용(受用)하고 살면서 한가하게 놀다가 죽어서 소파는 일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필기자 camus@

▲안거(安居)=불교에서 스님들이 하절기(음력 4월 보름~7월 보름)와 동절기(음력 10월 보름~정월 보름) 3개월 동안 참선수행에 몰두하는 것.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북방 불교에서만 실시하는 독특한 수행법 가운데 하나다. 부처가 벌레를 죽이지 못하도록 돌아다니는 것을 금하면서 유래했다.

종교칼럼

도일 통치자의 덕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무수한 통치자를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왕은 누구일까’라는 설문조사를 보았다. 서양의 유수한 학자들이 선정한 이 사람은 알렉산더나 솔로몬 왕이 아닌 인도의 아쇼카 대왕이었다. 우리에게서는 다소 생소한 아쇼카 대왕은 BC 3~4세기 때 인도를 통치한 왕으로 인도인들에게 있어 마치 우리의 세종대왕처럼 추앙되는 인물이다.

아쇼카가 통치를 시작한 초기에는 적국의 정벌을 위해 무수한 살육을 자행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지만, 어느 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백성의 모습에 크게 뉘우치고 불교에 귀의하였다. 그는 불교의 진리에 따른 법의 통치를 할 것을 서원하고 그때부터 일찍이 역사에 없었던 자비로운 정치를 베풀었다. 백성 위주의 편의시설을 곳곳에 세우는 것은 물론 동물을 위한 병원까지 짓고, 복지정책을 펴서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을 잘 보살폈다.

종교정책에 있어서도 그 자신은 비록 불교도였지만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하고 똑같이 존중하였다. 아쇼카 대왕은 자비와 평등을 일컫는 그의 정치신념을 통해 세계를 나라 여러 군데 세우고 널리 퍼지도록 노력하였다. 오늘날 인도에서 나라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사방을 바라보는 네 마리의 사자상이 곧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의 자취를 따라 순례하면서 세운 기념석주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로부터 자비를 행한 왕은 여러 있었지만 그 사람이 온 나라의 동물들까지 이르렀던 경우는 드물었기에 아쇼카 대왕이 가졌던 통치의 덕은 오늘날에도 빛난다. 집안이 어려울수록 어린 아내가 필요하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통치자가 현명해야한다.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며, 역사 의식을 갖추고 건강한 식성을 지닌 통치자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머지않아 치러야 할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수호국계주경(守護國界主經)’이라는 경전 속의 부처님 말씀을 상기해볼 만하다. “만약 통치자가 탐욕스럽고 사치스러우면 국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며, 탐욕이 없고 간소하여 국정을 제대로 다스린다. 인과를 무시하는 견해에 집착하면 국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며, 인과의 도리를 확실히 믿어야 국정을 제대로 다스린다. 마음이 고르지 못하면 국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며, 사사롭지 않고 평등하여 국정을 제대로 다스린다.”

(스님·송광사 율원)



광주장로성가단 정기연주회

내달 3일 광주문예회관 주석테, ‘내 마음과 영이’ 등 찬송가를 통해 남성 합창의 중후한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단원의 부인들과 함께 하는 부부합창에서는 ‘분향을 향하네’, ‘거룩, 거룩, 거룩’ 등으로 하모니를 뽐낸다. 익산 장로성가단과 소프라노 서은진씨가 특별 출연한다.

이번 공연에서 단원들은 ‘주여! 여가 함께 하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올해는 해인사가 총림(叢林)이 된지 40주년이자 초대 방장인 성철(性徹·1912~1993) 스님이 동안겨에 든 스님들에게 ‘백일법문(百日法門)’을 설법한지 4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해인사의 동안겨 결계법회. /연합뉴스

movies 인기영화 즐겨보는 시간 보낸다고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예약1544-0600

1관 세븐데이즈 (18세)	최고급관
2관 식객 (12세)	
3관 베오울프 (15세)/쏘우4 (18세)	
4관 우리동네 (18세)	
5관 어거스트 러쉬 (전제)	
6관 골든에이지 (12세) / 광주국제영화제	
7관 열한번째 엄마 (12세)	
8관 리빙로즈 (12세) / 광주국제영화제	
9관 색, 계 (18세)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됐습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로팜권 유효-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1관 열한번째엄마 (12세)
2관 이브닝 (15세)
3관 우리동네 (18세)
4관 스카우트 (12세)
5관 식객 (12세)
6관 골든에이지 (12세)
7관 베오울프 (15세)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워너-옥외 주차장 300대 *
* 빛고를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우리동네 (18세)
2관 식객 (12세)/리빙로즈 (12세)/쏘우 (18세)
3관 세븐데이즈 (18세)
4관 히트맨 (18세)
5관 베오울프 (15세)
6관 색, 계 (18세)
7관 어거스트러쉬 (전제)
8관 골든에이지 (12세)/마이클 클레이튼 (15세)
9관 열한번째 엄마 (12세)
10관 식객 (12세)

1588-7941
*호날 최대 주차장 *베일십야 상영합니다
*성명연결 판매 (1인 or 2인) - 1인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511-1000

1관 열한번째 엄마 (12세)
2관 어거스트 러쉬 (전제)
3관 세븐데이즈 (18세)
4관 골든 에이지 (12세) / 쏘우4 (18세)
5관 식객 (12세)
6관 베오울프 (15세) / 색, 계 (18세)
7관 우리동네 (18세)

매일십야 상영합니다.
*무로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녹차 사무이(오렌지-캐비츠)
ARS 전화예매 1544-0070

무등극장

충장로 1가 ☎232-9106

1관 어거스트 러쉬 (전제)
2관 베오울프 (15세)
3관 우리동네 (18세)
4관 열한번째 엄마 (12세)
5관 식객 (12세)
6관 히트맨 (18세)
7관 쏘우4 (18세) / 마이클 클레이튼 (15세)
8관 골든에이지 (12세) / 색, 계 (18세)
9관 세븐데이즈 (18세)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평일스 체면만을 위한 전용주차권
*편의예매 가능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제일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어거스트 러쉬 (전제)
2관 우리동네 (18세)
3관 열한번째 엄마 (12세)
4관 세븐데이즈 (18세)
5관 식객 (12세)
6관 색, 계 (18세) / 쏘우4 (18세)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무로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및 오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